

The Answer 1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마름의 비밀 - 응답을 얻는 성숙함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요한복음4:14

'응답' 시리즈의 결론은 '예수님'을 명확히 조명하는 것이다. 뿌옇게 된 모든 것을 거두어 내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조명하는 일.

예) 뿌연 거울 준비 - 깨끗하게 닦는다.

1.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3단계 여정

(1) Intimacy (친밀감)- 사역 전까지의 예수님

:훈련과정-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이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훈련 받는 단계이다.
-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 공격 - 우선순위에 대한 공격(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대한 갈등)

- 바쁨을 통한 공격 (시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 다니게 함) 등.

(2) Maturity (성숙)- 사역단계의 예수님

:훈련과정 -하나님을 향한 첫째 계명의 든든한 기초 위에서 두 번째 계명 즉 이웃을 향한 마음을 훈련 받는 단계.

- 모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단계
- 리더십이 형성되는 단계
- 여유의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단계
- 속사람의 능력을 배우는 단계
- 여유의 공간에서 열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단계

: 공격 -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공격 (섭섭함, 갈등, 등) 굳은 마음으로 만들기 위한 공격(정당성을 강화 시켜 정죄)

(3) Submission (복종)- 십자가의 완성 (신랑의 친구- 세례요한)

: 리더십을 통해 권위를 갖게 되는 단계이다. 가장 강력한 권위의 단계라 말할 수 있겠다. 그 권위를 가지고 십자가의 완성. 죽는 것,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음. 사역이 꽃을 피우며 완성되는 단계라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완성되는 단계이다.

: 공격 - 배신, 배반, 핍박, 고난 등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 분이 우리의 모든 완성과 '응답' 이 되신다.

2. 한국과 기쁨이 있는 교회는 두 번째 스테이지를 배워야 한다.

: 우리에게 성숙함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 들어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철저히 두 번째 단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3. 성숙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은 참으로 다양하다. 부자와 가난한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정말 다른 모든 환경의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예수님은 '응답' 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1) 성숙함은 여유의 공간을 만든다.

두 번째 스테이지를 성숙의 단계라고 했다. 성숙한 사람은 여유롭다.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이라도 여유있게 대처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성이다. 배려한다. 돌본다.

(2) 성숙함의 장벽은 상처와 아픔들이다. - 여유를 만들 수 없다.

반면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다. 항상 긴장되어 있다. 웃음이 없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말의 뿌리, 내 생각과 내 표현의 모든 뿌리는 속사람에 있는 것이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맺혀지는 열매도 건강하다. 그러나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맺혀지는 모든 것이 병들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여유의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성숙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부족한 속사람이 처리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철저히 치유되어야 성숙함에도달하게 되며 그 성숙함은 여유를 만든다. 그리고 그 여유는 '권위'를 가져다준다. 권위가 있다는 말은 리더십이 있다는 말이다.

4.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1) 목마름을 우리 인생에 풀어 놓는다.

- 실패와 고난과 상처를 경험하며 우리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수가성 여인: 모든 순간마다 경험한 상처들을 통해서 여인은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많은 경험을 한 여인이었지만 그 경험도 여인에게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었다. 결국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인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물가이다.
-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상처들과 아픔을 통해 그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다. 결국 그런 해결되지 못한 상처는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우물을 깊게 파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안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갈망'의 샘을 판다.
-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동시에 느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그 해결을 위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갈망은 아픔을 수반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세상을 향한 인간의 짝사랑 - 더 깊은 갈망과 목마름으로

: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지기 시작 할 때 진짜 사랑이 아닌 불려도 대답이 없는 거짓 사랑에 대해 짝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향해 쫓아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잡 힐만 하면 도

망가고 얻을만 하면 또 도망가고 계속해서 더 깊은 갈망의 우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는다.

2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3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4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5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 전도서 1:2~5

전도자의 고백 = 모든 것을 가져 보았지만 결국 변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고 자신이라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낀다. 상대적인 것을 추구해온 자신은 변했고 절대적인 자연은 변하지 않음에 무상함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적인 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

이 '허무'의 고백은 사실은 강력한 '갈망'의 고백이기도 하다. 전도자는 그 허무를 통한 더 강력한 갈망을 얻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3) 자유의지를 깨닫는 일 - 모든 목마름의 방향키.

ㄱ. 모든 인간은 갈망이 있다.

ㄴ. 갈망을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자유의지' 이다.

1) 자유의지 : 하나님을 향할 때 (죄 짓기 전의 인간)

; 당연히 친밀감과 기쁨이 상승 된다 - 다윗 (시편 27:4) - 친밀감의 상승효과 - 절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자유의지로 결정하기 시작 할 때 강력한 '상승효과' 가 일어남을 깨닫자.

3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4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 시편 27:3~4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 결정하는 사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유의지: 사람과 죄를 향할 때 - 고통과 고난의 시작 =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 "행동" 한다. 이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해결하고 하는 '갈망' 이다. -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 자유의지가 선택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만과 목마름을 평생 지닌채 살아가는 것이다.

- 자유의지가 선택한 인간의 결과는 '한계' 이다. - 한계의 열매 - 목마름 - 허무함과 공허함.

(4) 자유의지의 모든 선택은 '목마름' 이다.

(5)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의 발전소'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다.

: 이 때가 중요하다.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이며 그 갈망의 자가발전소를 움직이게 할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6) 모든 갈망의 끝은 예수님이다.

5. 목마른 여인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1) 너무나 자연스럽게 -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유와 성숙함의 공간이 만들어짐.

6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 요4:6

큰 차원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사마리아로 향하셨고,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쉬고 계신 것이다. 이 때 여인을 만난다.

여인의 상황은 갈망의 끝 가운데 고통 받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여인을 만나셨다.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앉으신 예수. 그 '우연'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갈망과 고통의 끝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나 주실 것이라는 '여유'를 마음에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응답을 얻는 '성숙함' 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나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의 끝이 깊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더 분명히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목마름이 깊어 갈수록 그 분은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분이 보일 때 우리는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숨을 깊게 한 번 내실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웃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유이며 성숙함이다.

(2) 모든 목마름의 응답 - 생수이신 예수그리스도 -여유의 공간에서 보고 듣게 되는 예수

1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5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 요 4:13~15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긴 여유의 공간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바로 그 여인의 평생의 목마름에 대한 해답이 된 것이다.

여유의 공간 (예수님을 신뢰 하는 장소) -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됨. - 담대해진다. - 새 삶을 얻는다 - 권위를 얻는다 - 도시를 변화 시킨다.

예) 나비효과 - 진리의 음성을 들은 작은 한 사람의 날개 짓이 도시를 변화 시키는 나비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믿으라.

(3) 모든 것의 해답과 확인 - 그 분이 먼저 나를 사랑 하신 것.

7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이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 요 4:7~9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곳이다. 그 분은 목마르지 않는 분이시다. 그 분은 생명수이시다. 그런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이 목말라 하신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다.

그 분은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있다. 예수님이 달라 하신다. 여인이 놀라는 것이다. 어떻게 유대인 (하늘-의인)이 사마리아인 (땅-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 분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신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런 귀한 존재를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이 터지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깨닫는 것이 '성숙함'의 단계이다. 한 영혼을 향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